

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부여군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for the Rural Development under
the Projects Block Grants System:
Focusing on the Rural Development in Buyeo

박은병* · 김성록** · 윤준상***

Eun Byeong Park · Sung Rok Kim · Jun Sang Yoon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focusing o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promotion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Block Grants System in Buyeo. Along with changes in the way to support rural development projects, it requires the autonomy, responsibility, creative planning etc. in the municipal government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residents' satisfac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explained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Block Grants System, and also reviewed the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강사. 주저자. e-mail: ebpak@hanmail.net

**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e-mail: isoiso@kongju.ac.kr

***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교수. 교신저자. e-mail: jsoon@kongju.ac.k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including the survey of the local residents. For this study, we selected some variables, and then divided into the participating groups such as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the development committee and the local residents. Finally, using statistical method we analyzed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local residents in rural areas.

주요어(key words): 농촌지역개발(Rural Development), 포괄보조금(Block Grants System), 주민참여(Residensts' Participation), 주민만족도(Residensts' Satisfaction)

1. 서론

2010년부터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에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예산지원방식이 정부주도의 개별단위 사업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 포괄보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지원방식의 변화는 대부분의 농산어촌의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예산규모나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즉,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인 농어민이 지역개발사업의 수혜자로서 그리고 경영과 운영 등 사업 참여자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어온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 노령화 등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비전의 공유가 어려워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추진위원이나 이장 반장 등 주민대표의 참여에 비해 일반주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반주민의 수요

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연구를 통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파악 및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분석과 방향제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행초기단계인 포괄보조금제도하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주체로서 효율적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부여군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주민참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측정을 위한 지역사례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여군의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주민참여의 관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업시행단계와 유지관리단계 등 상위단계사업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내용과 방법은 먼저 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배경과 성격,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등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여군에서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수준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진위원과 주민대표 등의 참여그룹과 일반주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문헌연구와 만족도와 참여수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5개의 리커트 척도로 구분하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2.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주민참여와 만족도—이론 및 선행연구

2.1. 포괄보조금제도의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중 하나로 중앙정부는 총액과 활동 범위만을 정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지방정부가 사업운영에 재량을 가지고 포괄적인 영역에 사용될 수 있게 배분되는 재원이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충당될 경비의 세목, 목표량, 단가, 대상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사업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주어진다.

2010년부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포괄보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정부부처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200여 개 지역개발계정사업이 22개 군으로 통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하에 창의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사업예산을 신청하여 포괄보조금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이주용 & 김선주, 2011: 57).

따라서 163개 시·군 중 120개의 시·군으로 구성된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이 다르고,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재원한도 범위 내에서 생활기반 확충 관련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 관련 사업,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었다(지역발전위원회, 2009: 이석주 & 윤상헌, 2009: 51 재인용).

그동안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정부부처별 개별사업추진으로 추진되었

으며, 이로 인하여 부처 간, 사업 간 연계성부족, 하드웨어 중심개발, 지역주체의 참여 및 역량발휘 부족 그리고 외부의존적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이원섭, 2005; 김창현, 박양호, & 박인권, 2006; 박경 & 구자인, 2006; 이양수 2007; 이양수, 2009, 이석주 & 윤상현, 2009: 52 재인용).

이러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제도의 장점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과 책임성을 유도할 수 있고, 주어진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이외에도 보조사업의 행·재정관리 효율화, 이익집단정치병리의 사전적 억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내실화의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단점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이 감소, 범주화의 쟁점 등을 들고 있다(임상봉 등, 2009: 8).

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주도로 추진되어온 다음의 15개의 개별사업, 즉 ① 도서종합개발, ② 소도읍육성, ③ 지표수보강개발, ④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⑤ 어촌종합개발, ⑥ 신활력지원, ⑦ 농촌마을종합개발, ⑧ 전원마을조성, 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⑩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⑪ 기계화경작로확포장, ⑫ 소규모용수개발, ⑬ 주거환경개선, ⑭ 개발촉진지구지원, ⑮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말한다. 한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신활력지원사업은 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계화경작로, 지표수보강, 소규모용수개발 관련사업은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임상봉 등, 2009: 3-4).

이 제도의 실행이전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선행연구는 평가지표개발, 계획의 내용분석, 유형별사업내용 검토, 등 다양하나 시행초기단계인 포괄보조금제도하에서의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와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대한 실천적인 사례연구는 미흡하다.

사업평가에 대하여 임상봉 등(2009)은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모니터링·평가 기능의 강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에서 평가시기와 형식에 따라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주민참여와 관련된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위한 주민의견반영, 사업추진역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주민의 역량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주용 & 김선주(2011)는 포괄보조금제도하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계획과 사업비의 확보 타당성, 목표에 맞는 사업성과 도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시행전단계에서는 창의적인 계획의 수립여부가 사업시행중에는 모니터링 실시와 결과반영이 그리고 시행후에는 만족도와 파급효과가 기존의 단위별 사업별 평가지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이석주 & 윤상현(2009)은 포괄보조금제도하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테마클러스터형 지역개발방식'의 적용을 전북 순창군 지역개발계획 수립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개별단위사업보조로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의 참여와 만족도에 관련한 연구에 대하여 이정환(2007)은 소득기반시설과 농촌관광시설에 집중투자계획 수립, 도시민 유치방법, 체험장, 하드웨어시설의 규모 적정성 검토, 권역주민의 자발적 관리와 운영, 지자체의 의지 등을 강조하였다. 김승근(2006)은 지역주민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관련 사업들이 생활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적극적 홍보, 인재양성과 리더십교육 강화방안, 마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중요하게 꼽았다.

이상에서 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성격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추진공간이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성화 개발이자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여건, 자원, 주민역량 등 지역현황과 잠재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었으나, 본 연구는 최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부여군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현재 추진 중인 6개의 포괄보조사업권역에 대하여 참여그룹과 일반그룹으로 구분하여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분석한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2.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와 만족도

2.2.1. 주민참여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참여방법은 다양하여 단순히 노동력이나 토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후자에 의한 주민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민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지역자원으로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에 관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주민참여의 정의에 대하여 Verba(1967)는 “정책결정자의 충원 또는 정책에 다소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untington & John(1976)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Cahn & Barry(1971)는 주민참여를 권력재분배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이 앞으로 정부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재분배”라고 정의하였다. Parry & Neil(1992)는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국회의원과 정부관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민참여라고 정의하였다(허주열 & 이성근, 2009: 48에서 재인용). 이들은 주민참여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견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민참여의 의미에 대하여 안중철 & 이성호(2003: 92)는 그러한 주민참여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관련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민의식을 개발목표에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민참여의 의미와 참여단계에 대하여 유상건(2006: 5)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이들을 역할을 바탕으로 개발시행 상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제 과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명확해진 사실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계획준비단계, 계획수립, 계획보완단계, 사업시행, 유지관리 단계에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주열 & 이성근(2009: 47)은 경상북도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9개 시군과 88개 마을의 추진위원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의 특성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준비단계, 계획단계, 추진체계구축단계로 구분하여 분석변수와 조사항목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임상봉 등(2009)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단계별 구분을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로, 이주용 & 김선주(2011)는 사업계획단계와 시행단계 그리고 사업직후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수준을 높

이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나, 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노인이 대부분인 농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은 쉽지 않다¹⁾(허주열 & 이성근, 2009: 14). 또한 장덕기 & 채종훈(2010: 11) 농촌지역주민의 고령화 및 낮은 학력수준으로 개발의사결정과 사업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소수에게 제한되고 있고, 개발이익이 운영위원, 고소득농가, 영농규모가 큰 주민, 음식·숙박업자 등에게 개발이익이 편중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로 만들어 가는 일은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연계를 실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경쟁력이 되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07: 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의의에 대하여 단순히 정책 및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과정은 크게 사업의 계획과정과 사업집행 그리고 사업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연구자의 연구목표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계획단계를 입지선정 등의 기본계획수립단계과 사업의 예산편성 등의 세부계획수립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2. 주민만족도

지역주민의 만족도 연구는 지역사회만족도의 개념화 및 척도 개발, 지

1) 행정은 주민이 행정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입장이고, 주민은 행정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또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허주열.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수준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14.

역사회 만족도 개념의 다차원적 접근 및 결정요인 탐색, 만족도의 지역 간(도농간)의 비교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간활동은 장소적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구에 대한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서 생기는 주관적이며 다차원적인 심리적 상태로, 이는 개인적 삶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주거만족도로 분류될 수 있다(유석춘, 박해광, & 송복, 1996).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사회복지(social wellbeing), 생활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사회적 복리(social welfare), 생활수준(level of living), 생활의 기준(standard of living), 좋은 생활(good life), 행복(happiness)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Evans, 1994; 이영균 & 김동균, 2007: 225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GNP 등 경제지표, 건강과 복지 지표, 교육지표와 같은 각종 사회지표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같은 사회적 여건에 처해 있어도 느끼는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통적으로 혈연 및 농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의 주민생활 특성은 개인적, 이익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도시생활과는 달리 지역공동체 생활과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조영숙, 황대용, & 고정숙, 2004: 114-116).

지역사회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에 관하여 Davis(1945)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주민들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심리적 특성, 객관적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가치, 지역의 장래성 인식 등을 포함하는 4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크기와 만족도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숙, 황대용, & 고정숙, 2004: 115에서 재인용).

Johnson & Knop(1970)은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사회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도시민들은 쇼핑, 의료, 교사자질, 취업기회 및 여가 측면에서 더 만족을 느끼고, 농촌주민들은 지리적 환경 등에 더 만족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조영숙, 황대용, & 고정숙, 2004: 116에서 재인용).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의 하나인 소도읍육성사업(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정책심의회, 2007)의 사업성과평가와 관련하여 2006년 사업이 완료된 14개 소도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었으나, 참여는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참여방식은 대부분 주민설명회로 나타났다. 소도읍육성관련 개별사업과 전체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하천환경개선, 도로개설과 확장, 주차장, 공원조성 등 지역의 기반시설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Goudy(1977)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차원 특히 의사결정이 공유되고 지역사회에 많이 관여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박윤희, 김강섭, 전택기, & 양현석(2008)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후평가 및 제도개선의 관점에서 주민의식개선과 의식변화, 주민의 역량강화가 가장 큰 효과로 지적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사례분석—설문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부여군 농산어촌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참여주체별 추진사업에 대한 인지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참여주체와 만족도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참여주체와 참여도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참여주체와 기본계획수립시 보강되어야 할 점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참여주체와 주민

의견반영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참여주체와 세부사업 만족도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사지역 및 대상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353명으로,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한 달 동안 부여군청에서 포괄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읍면동에 주민대표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각각의 세부문항에 대해 5개의 리커트 척도로 구분하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3.1. 분석의 변수 및 방법

3.1.1. 분석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초기단계인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과정을 기본계획수립단계와 세부계획단계의 두 단계로 구분²⁾하였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단계는 참여방식과 보강할 점과 세부계획단계에서는 참여방식과 의견수렴여부에 대하여 그리고 각각의 만족도를 <표 1>에서와 같은 변수로 구성하였다.

2) 기본계획수립단계는 사업지구의 입지선정, 공모에 있어 주민 참여 그리고 세부계획수립단계는 사업계획의 절차, 예산편성, 재원조달계획, 시설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의사 반영 등에 대한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1〉 분석변수

분석구분	분석단계	분석변수
참여	기본계획수립	참여방식
		보강할 점
	세부계획수립	참여방식
		의견수렴
만족도	기본계획수립	주민참여만족도
	세부계획수립	주민참여만족도

3.1.2. 분석대상 및 방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참여주체별 주민참여와 만족도 평가를 위해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추진위원(전 추진위원 포함), 이장, 부녀회장, 노인 회장, 청년회장 등 주민대표와 일반주민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³⁾하였고, 결측값을 제외한 224명(100%) 중 추진위원이 21명(9.3%), 주민대표가 36명(16.0%), 일반주민이 167명(74.4%)으로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

구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추진위원(전 추진위원포함)	21	6.0	9.3
	주민대표	36	10.2	16.0
	일반주민	167	47.6	74.7
	합계	224	63.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9	36.3	
	합계	353	100.0	

3) 총 353명의 응답자의 거주지는 부여읍35명, 규암면11명, 은산면 18명, 외산면 21명, 내산면 27명, 홍산면 20명, 옥산면 32명, 남면 12명, 충화면 29명, 양화면 31명, 임천면 28명, 장암면 7명, 석성면 29명, 초촌면 23명 그리고 결측값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중 조사대상지인 6개권역종합정비사업지구외의 거주자와 결측값을 합하여 129명의 시스템결측값이 나왔다.

현재 부여군에서 추진 중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은 7개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7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2개의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3개의 기초생활인프라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여군의 읍면에 거주하고 지역주민을 추진위원과 주민대표를 참여그룹으로 그리고 일반주민으로 비참여그룹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6개의 권역 및 면소재지개발사업의 시기, 비용 및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지역개발사업현황

구분	사업시기	사업비 (백만원)	내용
백마강권역 종합정비사업	2011~2015	5,000	마을안길정비, 커뮤니티센터, 건강관리실, 복지회관, 마을회관리모델링, 휴게쉼터 및 꽃길조성 등
사비석성권역 종합정비사업	2011~2015	7,354	복합문화센터, 냉풍욕 및 물놀이체험장, 폐상폐비 집하장, 양송이가공센터, 양송이 현우축산단지 등
소부리권역 종합정비사업	2011~2015	5,730	복합문화센터, 마을안길정비, 간이상수도정비, 마을회관정비, 발아현미가공시설, 꽃감가공시설, 선사체험장 등
임천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2014	7,000	가림문화센터, 마을공동주차장, 자치센터리모델링, 트래킹코스, 5일시장 정비, 가로정비, 소하천 정비등
외산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2015	7,000	문화센터, 세천정비, 주차장정비, 조깅코스, 등산로 정비, 가로경관, 인공폭포, 등
월명산권역 종합정비사업	2012~2016	3,794	복합문화교류센터, 등산로, 저온저장시설, 공동선별장, 미생물퇴비배양사, 농산물가공시설 등

3.2. 주민참여와 만족도조사

3.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는 총 224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150명(67.0%), 여자가

69명(30.8%)으로, 연령은 50대가 63명(28.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40대 56명(25.0%), 30대 52명(23.2%), 60대 이상 40명(17.9%), 20대 12명(5.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출생 이후 계속 72명(32.1%), 20년 이상 43명(19.2%), 5~9년 28명(12.5%), 15~19년 26명(11.6%), 10~14년 25명(11.2%)의 순으로, 전체 166명(74.1%)이 10년 이상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직업은 농업이 113명(5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무원이 40명(17.9%), 주부 18명(8.0%) 그리고 서비스업 13명(5.8%) 등의 순이고 거주지는 면이 189명(84.4%) 그리고 읍이 30명(13.4%)로 구분된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가 93명(4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다가 47명(21.8%)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주민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일반주민 165명의 42.4%에 해당하는 70명이 응답하여 추진 위원이나 주민대표에 비해 상당히 인지도가 낮았다(〈표 4〉 참조).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일반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먼저 지역문제 및 지역발전비전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참여주체별 추진사업에 대한 인지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참여주체와 사업내용의 인지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카이제곱값은 37.129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0개로 나타났다.

〈표 4〉 참여주체별 사업내용인지

구분	참여주체		전체	χ^2/p
	참여그룹	일반주민		
잘 알고 있다	빈도	26	21	47
	기대빈도	11.1	35.9	47.0
보통이다	빈도	19	74	93
	기대빈도	22.0	71.0	93.0
잘 모른다	빈도	6	70	76
	기대빈도	17.9	58.1	76.0
계		23.6%	76.4%	100.0%

* $p < 0.0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고, 최소기대빈도는 11.10임.

3.2.2. 기본계획단계

기본계획단계의 참여주체별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 107명(6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이 38명(22.4%), 매우 만족이 18명(10.6%)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만족도는 163명(95.9%)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만족과 만족의 두 가지 척도에서 추진위원, 주민대표 등 참여그룹의 빈도는 기대빈도보다 높았으며, 일반주민의 빈도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기본계획단계의 참여주체별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주민의 경우 참여그룹에 비해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여주체별 기본계획만족도

구분	참여주체		전체	χ^2/p	
	참여그룹	일반주민			
매우 만족	빈도	8	10	18	14.292/0.006*
	기대빈도	5.1	12.9	18.0	
만족	빈도	17	21	38	
	기대빈도	10.7	27.3	38.0	
보통	빈도	21	86	107	
	기대빈도	30.2	76.8	107.0	
불만	빈도	1	5	6	
	기대빈도	1.7	4.3	6.0	
매우 불만	빈도	1	0	1	
	기대빈도	.3	.7	1.0	
계		28.2%	71.8%	100.0%	

*p<0.01 4셀(4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고, 최소기대빈도는 0.28임.

기본계획단계에서 “참여주체와 만족도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확률이 0.006으로 나타나 참여주체와 만족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카이제곱값은 14.292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4개로 나타나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단계의 참여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도를 살펴보면, 단순참여가 66명(39.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안 함이 58명(34.9 %), 적극 참여가 26명(15.6%)으로 나타나 참여 이상의 참여도는 108명(65.1%)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 참여와 기본적인 참여에서 추진위원, 주민대표 등의 참여그룹의 빈도는 기대보다 높았

으며, 일반주민의 빈도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주민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주민의 경우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여주체별 기본계획과정참여도

구분	참여주체		전체	χ^2/p
	참여그룹	일반주민		
적극적 참여 (사업계획서, 면담 등)	빈도	17	9	26
	기대빈도	7.3	18.7	26.0
기본적 참여 (추진위, 사업제안 등)	빈도	13	3	16
	기대빈도	4.5	11.5	16.0
단순참여	빈도	11	55	66
	기대빈도	18.5	47.5	66.0
참여 안함	빈도	6	54	58
	기대빈도	16.8	41.8	58.0
계		28.0	72.0%	100.0%

* $p < 0.01$ 1셀(12.5%)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고, 최소기대빈도는 4.48임.

기본계획단계에서 “참여주체와 참여도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참여주체와 참여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고, 구체적으로 카이제곱값은 54.405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1개로 나타났다.

기본계획수립시 보장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메뉴를 다양화’가 61명(3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역량강화’가 33명(20.2%),

‘기본계획수립자의 독단적인 계획수립지양’이 27명(16.6%),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의 연장’과 ‘추진위원장 외 소수 추진위원들의 독단적인 계획수립 지양’이 각각 25명(15.3%)과 17명(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참여주체별 기본계획시 보강할 사항

구분	참여주체		전체	χ^2/p
	참여그룹	일반주민		
사업메뉴 다양화	빈도	23	38	61
	기대빈도	17.2	43.8	61.0
조사기간 연장	빈도	7	18	25
	기대빈도	7.1	17.9	25.0
조사자 역량강화	빈도	8	25	33
	기대빈도	9.3	23.7	33.0
계획수립자 독단 지양	빈도	7	20	27
	기대빈도	7.6	19.4	27.0
소수 추진위원 독단 지양	빈도	1	16	17
	기대빈도	4.8	12.2	17.0
계		28.2	71.8%	100.0%

* $p < 0.01$ 1셀(1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고, 최소기대빈도는 4.80임.

기본계획단계에서 “참여주체와 기본계획수립시 보강되어야 할 점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124로 나타나 참여주체와 보강되어야 하는 점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무산되었다. 구체적으로 카이제곱값은 7.225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1개로 나타났다.

3.2.3. 세부계획단계

세부계획단계의 참여주체별 전체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 104명(6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이 44명(26.5%), 매우 만족이 11명(6.6%)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만족도는 159명(95.8%)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과 만족의 두 가지 척도에서 추진위원, 주민대표 등의 참여그룹의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주민의 빈도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세부계획단계의 주민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기본계획단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주민의 경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계획단계에서 “참여주체와 만족도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18으로 나타나 참여주체와 만족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은 무산되었다. 구체적으로 카이제곱값은 11.902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5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부계획단계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참여그룹과 일반주민 간 만족도에 관련성과 독립성의 차이가 없으나 세부계획단계에서의 만족이상의 비율은 기본계획단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8〉 참여주체별 세부계획만족도

구분	참여주체		전체	χ^2/p
	참여그룹	일반주민		
매우 만족	빈도	6	5	11
	기대빈도	3.1	7.9	11.0
만족	빈도	18	26	44
	기대빈도	12.5	31.5	44.0

보통	빈도	23	81	104	11.902/0.018
	기대빈도	29.4	74.6	104.0	
불만	빈도	0	6	6	
	기대빈도	1.7	4.3	6.0	
매우 불만	빈도	0	1	1	
	기대빈도	.3	.7	1.0	
계		28.3	71.7%	100.0%	

*p<0.01 5셀(5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고, 최소기대빈도는 0.28임.

세부계획단계의 참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도를 살펴보면, 단순참여가 61명(3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안함이 49명(30.8%), 기본 참여가 28명(17.6%)으로 나타나 단순참여 이상의 참여도는 110명(69.2%)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 참여와 기본적 참여에서 추진위원, 주민대표 등 참여그룹의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았으며, 일반주민의 빈도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세부계획단계에서 “참여주체와 참여도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참여주체와 참여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카이제곱값은 46.672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참여주체별 세부계획참여도

구분	참여주체		전체	χ ² /p
	참여그룹	일반주민		
적극적 참여	빈도	11	10	21
	기대빈도	5.5	15.5	21.0
기본 참여	빈도	19	9	28
	기대빈도	7.4	20.6	28.0

46.672/0.000

단순참여	빈도	9	52	61	46.672/0.000
	기대빈도	16.1	44.9	61.0	
참여안함	빈도	3	46	49	
	기대빈도	12.9	36.1	49.0	
계		26.4	73.6%	100.0%	

*p<0.0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은 없고, 최소기대빈도는 5.55임.

세부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의 반영도를 살펴보면, 보통이 72명(4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54명(33.5%), 매우 그렇다가 16명(9.9%)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이라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142명(88.2%)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추진위원, 주민대표 등의 참여그룹의 빈도는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주민의 빈도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세부계획단계에서 “참여주체와 주민의견 반영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참여주체와 참여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카이제곱값은 21.679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4개(40.0%)로 교차분석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참여주체별 주민의견 반영도

구분	참여주체		전체	χ^2/p
	참여그룹	일반주민		
매우 그렇다	빈도	11	5	16
	기대빈도	4.6	11.4	16.0
그렇다	빈도	20	34	54
	기대빈도	15.4	38.6	54.0

보통	빈도	13	59	72	21.679/.000
	기대빈도	20.6	51.4	72.0	
그렇지 않다	빈도	2	14	16	
	기대빈도	4.6	11.4	16.0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0	3	3	
	기대빈도	.9	2.1	3.0	
계		28.6	71.4%	100.0%	

*p<0.01 4셀(4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고, 최소기대빈도는 0.86임.

사업의 시설물 이용 등 세부사업의 대한 만족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 84명(5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53명(33.8%),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4명(8.9%)과 6명(3.8%)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이라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151명(96.2%)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추진위원, 주민대표 등의 참여그룹의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주민의 빈도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참여주체와 세부사업만족도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1로 나타나 참여주체와 참여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카이제곱값은 15.074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5개(50%)로 교차분석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여주체별 세부사업내용의 만족도

구분	참여주체		전체	χ^2/p
	참여그룹	일반주민		
매우 그렇다	빈도	6	8	14
	기대빈도	4.2	9.8	14.0
그렇다	빈도	25	28	53
	기대빈도	15.9	37.1	53.0
보통	빈도	14	70	84
	기대빈도	25.1	58.9	84.0
그렇지 않다	빈도	2	4	6
	기대빈도	1.8	4.2	6.0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기대빈도	0	0	0
계		29.9	70.1	100.0%

* $p < 0.01$ 5셀(5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고, 최소기대빈도는 1.80임.

세부사업 내용 중 만족부문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정비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복지시설 20.0%, 지역역량강화 13.3%, 경관 개선 10.9%, 환경개선 10.5%, 농촌관광시설 9.5%, 운동휴양시설 및 재해대비시설이 각각 7.7%의 순으로 전체적인 응답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또한 창의적인 계획의 수립과 지역 역량의 결집을 위한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

구는 부여군을 사례로 포괄보조금제도하에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 참여와 만족도에 관하여 기본계획단계와 세부계획단계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추진위원,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주민대표하는 참여그룹과 일반주민으로 구분하여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계획수립 시 사업이 추진된 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여부에 관한 문항에 잘 모른다는 응답이 일반주민 165명의 42.4%에 해당하는 70명이 응답하여 추진위원이나 주민대표에 비해 상당히 인지도가 낮았다. 또한 참여주체와 추진사업의 인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그동안 대부분이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나이가 많은 일반주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를 높여,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수립 시 주민만족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주민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만족은 각각 163명(95.9%)과 159명(95.8%)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주민의 만족도는 참여그룹보다 다소 부족하고, 이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본계획단계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의 참여그룹과 일반주민 간 만족도에 관련성과 독립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4개로 나타나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계획단계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참여그룹과 주민그룹 간 만족도에 관련성과 독립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oudy(1977)가 주장한 지역사회에 많이 참여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과 다른 의외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넷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수립시 주민참여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순 참여이상의 참여도는 각각 108명(65.1%)과 110명(69.2%)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주민의 참여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시의 참여주체별 참여도는 카이제곱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부계획단계의 주민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반영도를 살펴보면, 보통이 72명(4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54명(33.5%), 매우 그렇다가 16명(9.9%)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자는 전체의 142명(88.2%)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추진위원, 주민대표 등의 참여그룹이 일반주민의 기대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본계획시 보강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메뉴를 다양화'가 61명(3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역량강화'가 33명(20.2%), '기본계획수립자의 독단적인 계획수립지양'이 27명(16.6%),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의 연장'과 '추진위원장과 소수 추진위원들의 독단적인 계획수립 지양'이 각각 25명(15.3%)과 17명(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포괄보조제도하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특성을 살펴본 결과 일반주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인지가 낮았으며, 참여도가 높은 그룹과 만족도와는 독립성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의외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수준에 비해 주민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주민의 경우 추진위원회에 비해 주민참여수준과 주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주민의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회,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한 교육, 홍보, 선진지 견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인 만족도의 유지를 위한 세부사업 내용 중 기초생활정비, 문화복지시설,

지역역량강화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부여군의 경우 참여도가 높은 그룹과 만족도와는 독립성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주민전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참여보다는 마을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주민참여에 있어 단순참여가 대부분이며, 이는 농촌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 및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민들은 주민의견이 반영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살펴보면 지역개발사업추진의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제시하고 개발목표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안종철 & 이성호, 2003: 92). 더불어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일반주민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함께 주민 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포인트제, 정책설명청구제와 주민참여정책평가제 등의 도입에 대한 조례 및 제도에 대하여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여군을 대상으로 시행초기인 계획단계인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의 특성과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피드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계획단계 이후, 즉 집행단계, 평가단계에서 논의하지 못한 점은 포괄보조금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수행한 본 연구의 한계로 단계별로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 문헌 ■

- 김승근. (2006). 제천시 용두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수요 및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8(3), 9-16.
- 김창현, 박양호, & 박인권. (2006).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박경, & 구자인. (2006). 중앙·시군단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윤희, 김강섭, 전택기, & 양형석. (2008). 농촌마을 정비사업추진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안종철, & 이성호. (2003). 관광단지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보*, 14, 89-98.
- 유상진. (2006). 농촌지역개발과 주민참여. 한국농어촌공사 학술대회 자료집.
- 유석훈, 박해광, & 송복. (1996).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지역 및 주거실태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2, 1-38.
- 이양수. (2007). 참여정부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 평가—지역혁신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9(1), 1-17.
- 이양수. (2009). 참여정부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평가와 전망. *한국지방자치연구*, 10(4), 25-46.
- 이석주, & 윤상현. (2009). 포괄보조금 제도하의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테마클러스터형 지역개발방식에 대한 소고. *농촌계획*, 15(4), 51-57.
- 이영균, & 김동균.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원섭. (2005).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국토 planning and policy*, 290, 59-67.
- 이정환. (2008). 농촌마을 유형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내용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용, & 김선주. (2011). 포괄보조금제도하에서 효율적인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평가지표 연구. *한국농공학회논문집*, 53(1), 57-62.
- 임상봉, 김미영, 이석주, 윤상현, 전택기, 김선주, et al. (2009). 포괄보조금 시행에 따른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평가기법개발.

- 장덕기, & 채종훈. (2010). 전남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농어민의 만족도와 개선과제. 전남발전연구원 리진인포, 220.
- 조영숙, 황대용, & 고정숙. (2004). 농촌주민의 지역사회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113-125.
- 지역발전위원회. (2009). 기초생활권발전계획수립 매뉴얼.
- 한국농어촌공사. (2007).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 행정자치부. (2007).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성과평가결과 종합보고서.
- 허주열.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수준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주열, & 이성근.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45-70.
- Cahn, E., & Barry, P. (1971). *Citizen Particip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 Press.
- Evans, R. (1994).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1), 47-88.
- Goudy W. J. (1977). Evaluation of local attributes and community satisfaction in small town. *Rural Sociology*, 42(3), 371-382.
- Huntington, S., & John, N. (1976).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oston: Harvard Univ. Press.
- Parry, G., & Neil, D.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Verba S. (1967).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Annu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